제8장

한국 경학사상 연구

김유곤

1. 머리말

이 보고서는 2020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학술 논문 중에서 경학 관련 연구 성과를 분석한 글이다. 경학에 관한 논문으로 선정한 기준은 유교 경전인 십삼경(十三經)에 대한 한국, 중국, 일본 학자들의 주석을 중심으로 분석한 글로 한정하였다. 2020년도에 출간된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와 등재 후보 학술지를 살펴본 결과 경학에 관한 주요 논문은 총 30편이 있었다. 30편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길태은	간재의 「독맹자(讀孟子)」 연구(–수양론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52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	길태은	간재의 인물성론 고찰(–「중용기의(中庸記疑)」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104	동양철학연구회
3	김동민	곽종석의 『춘추』 문답을 통해 본 19세기 조선조 지식인의 『춘추』 이해(1)	한국철학논집 65	한국철학사연구회
4	김동민	곽종석의 『춘추』 문답을 통해 본 19세기 조선조 지식인의 『춘추』 이해(2)	한국철학논집 66	한국철학사연구회
5	김동민	이진상의 춘추학에 보이는 화이관(華夷觀)의 특징(1)	유교사상문화연구 81	한국유교학회
6	김동민	이진상의 춘추학에 보이는 화이관(華夷觀)의 특징(2)	한국철학논집 67	한국철학사연구회
7	김연지	『서포만필(西浦漫筆)』의 『시경』 〈관저(關雎)〉 해석에 관한 고찰(–주자의 『시집전(詩集傳)』에 대한 서포의 시각을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64	대동한문학회
8	김유곤	정조의 『대학』 이해의 특징	동양철학연구 102	동양철학연구회
9	박상리	근대 유학자 설태희의 경전해석과 실천의식	유교사상문화연구 80	한국유교학회
10	배병대	하곡의 『맹자설』 〈호연장해(浩然章解)〉의 구조와 그 윤리학적 함의	양명학 57	한국양명학회

11	서근식	다산학단의 『주역』 해석 방법론 연구(–정약용의 아들들과 방산 윤정기의 『역전의(易傳翼)』을 중심으로–)	민족문화 55	한국고전번역원
12	서근식	백호 윤휴 『대학』 해석의 신연구	율곡학연구 41	율곡학회
13	안승우	이병헌의 금문경학적 『역경』 이해(–태괘(泰卦)와 비괘(否卦)를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79	한국유교학회
14	안승우	이병헌 역학 사상의 신(神) 개념 연구	유교사상문화연구 80	한국유교학회
15	안승우	캉유웨이(康有爲)와 이병헌의 『중용』 해석 비교(–공교(孔敎) 이론의 동이점 고찰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82	한국유교학회
16	엄연석	김원행 『중용강설』의 실천 지향적 경전 해석의 특징(–문화다원론적 지향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44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7	엄연석	최명길의 『중용관견』에 나타난 경학적 특징과 문화다원론적 지평	퇴계학논집 26	영남퇴계학연구원
18	이원석	정조와 윤행임의 『대학장구 서문』 해석과 인물성동이 논쟁(–『증전추록(曾傳秋錄)』 분석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44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9	이은호	식산 이만부의 『역통(易統)』과 경학사적 의의	국학연구 42	한국국학진흥원
20	이창일	신후담 역(易) 해석의 통합적 방법론(–『문언전(文言傳)』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53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1	이해임	최명길과 조익의 경전 해석 경향과 그 의의(–사문록, 『맹자기의(孟子記疑)』를 중심으로–)	철학탐구 58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2	이현선	퇴계 이황의 『대학』 해석에 있어 특징적 면모	철학탐구 57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3	조장연	삼산 류정원의 역학사상	국학연구 43	한국국학진흥원
24	조정은	『논어문의(論語問疑)』를 통해 본 홍대용의 경학사상사적 의의(–전통적 해석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해석 지평 마련–)	태동고전연구 44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5	최석기	하빈 신후담의 『중용』 해석과 그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77	한국한문학회

26	한정길	다산 정약용의 『대학』 이해와 그 정치사상적 의미	태동고전연구 44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7	함영대	순암 안정복의 사서 해석	동양고전연구 81	동양고전학회
28	황인옥	『사변록 중용』의 양명학적 양상 고찰(–『중용』 수장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51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9	황인옥	서계의 『중용』 분장절 체계에 관한 연구	유학연구 53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30	황인옥	성호의 경(經)·전(傳) 체제 『중용』 해석 연구(–『중용질서(中庸疾書)』를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98	한국동서철학회

보고서 구성은 먼저 전체 30편 논문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분류 방식에 따라 나누어 보았다. 첫째 인물별 분류, 둘째 주제별 분류이다. 인물별 분류에서는 한국 유학자, 한국·중국 유학자들을 비교하여 다룬 논문으로 구별하였다. 주제별 분류에서는 연구 대상 경전별로 구별하였다. 그리고 각 경전별로 의미 있는 논문 10편에 대해 분석을 하고, 2020년 경학 관련 연구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한 짧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2. 인물별 분류

총 30편의 경학 논문 중에서 경전 주석서를 중심으로 학자의 경학 사상을 다룬 논문은 30편 모두이다. 그 중에서 한국 유학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29편, 한국 유학자와 중국 유학자를 비교한 논문이 1편이다.

1) 한국 유학자

2편의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은 총 6명으로 시대 순으로 나열해 보면, 박세당(朴世堂)(서계(西溪), 1629-1703), 신후담(愼後聃)(하빈(河濱), 1702-1761), 이진상(李震相)(한주(寒洲), 1818-1886), 전우(田愚)(간재(艮齋), 1841-1922), 곽종석(郭鍾錫)(면우(俛宇), 1846-1919), 이병헌(李炳憲)(진암(眞庵), 1870-1940)이다.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황인옥	『사변록 중용』의 양명학적 양상 고찰(-『중용』 수장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51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	황인옥	서계의 『중용』 분장절 체계에 관한 연구	유학연구 53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창일	신후담 역(易) 해석의 통합적 방법론(-「문언전(文言傳)」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53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	최석기	하빈 신후담의 『중용』 해석과 그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77	한국한문학회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동민	이진상의 춘추학에 보이는 화이관(華夷觀)의 특징(1)	유교사상문화연구 81	한국유교학회
2	김동민	이진상의 춘추학에 보이는 화이관(華夷觀)의 특징(2)	한국철학논집 67	한국철학사연구회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길태은	간재의 「독맹자(讀孟子)」 연구(–수양론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52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	길태은	간재의 인물성론 고찰(–「중용기의(中庸記疑)」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104	동양철학연구회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동민	곽종석의 『춘추』 문답을 통해 본 19세기 조선조 지식인의 『춘추』 이해(1)	한국철학논집 65	한국철학사연구회
2	김동민	곽종석의 『춘추』 문답을 통해 본 19세기 조선조 지식인의 『춘추』 이해(2)	한국철학논집 66	한국철학사연구회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안승우	이병헌의 금문경학적 『역경』 이해(–태괘(泰卦)와 비괘(否卦)를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79	한국유교학회
2	안승우	이병헌 역학 사상의 신(神) 개념 연구	유교사상문화연구 80	한국유교학회

각 1편의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은 총 14명으로 시대 순으로 나열해 보면, 이황(李滉)(퇴계(退溪), 1501–1570), 최명길(崔鳴吉)(지천(遲川), 1586–1647), 윤휴(尹鑴)(백호(白湖), 1617–1680), 김만중(金萬重)(서포(西浦), 1637–1692), 정제두(鄭齊斗)(하곡(霞谷), 1649–1736), 이만부(李萬敷)(식산(息山), 1664–1732), 이익(李瀷)(성호(星湖), 1681–

1763), 김원행(金元行)(미호(渼湖), 1702-1772), 류정원(柳正源)(삼산(三山), 1703-1761), 안정복(安鼎福)(순암(順庵), 1712-1791), 홍대용(洪大容)(담헌(湛軒), 1731-1783), 정조(正祖)(홍재(弘齋), 1752-1800), 정약용(丁若鏞)(다산(茶山), 1762-1836), 설태희(薛泰熙), 1875-1940)이다.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현선	퇴계 이황의 『대학』 해석에 있어 특징적 면모	철학탐구 57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	엄연석	최명길의 「중용관견」에 나타난 경학적 특징과 문화다원론적 지평	퇴계학논집 26	영남퇴계학연구원
3	서근식	백호 윤휴 『대학』 해석의 신연구	율곡학연구 41	율곡학회
4	김연지	『서포만필(西浦漫筆)』의 『시경』 〈관저(關雎)〉 해석에 관한 고찰(-주자의 『시집전(詩集傳)』에 대한 서포의 시각을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64	대동한문학회
5	배병대	하곡의 『맹자설』 〈호연장해(浩然章解)〉의 구조와 그 윤리학적 함의	양명학 57	한국양명학회
6	이은호	식산 이만부의 『역통(易統)』과 경학사적 의의	국학연구 42	한국국학진흥원
7	황인옥	성호의 경(經)·전(傳) 체제 『중용』 해석 연구(-『중용질서(中庸疾書)』를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98	한국동서철학회
8	엄연석	김원행 『중용강설』의 실천 지향적 경전 해석의 특징(-문화다원론적 지향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44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9	조장연	삼산 류정원의 역학사상	국학연구 43	한국국학진흥원
10	함영대	순암 안정복의 사서 해석	동양고전연구 81	동양고전학회
11	조정은	『논어문의(論語問疑)』를 통해 본 홍대용의 경학사상사적 의의(-전통적 해석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해석 지평 마련-)	태동고전연구 44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2	김유곤	정조의 『대학』 이해의 특징	동양철학연구 102	동양철학연구회
13	한정길	다산 정약용의 『대학』 이해와 그 정치사상적 의미	태동고전연구 44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4	박상리	근대 유학자 설태희의 경전해석과 실천의식	유교사상문화연구 80	한국유교학회

하나의 논문에서 2명의 학자를 다루고 있는 논문은 2편으로 그 대상은 정조와 윤행임(尹行恁)(석재(碩齋), 1762-1801), 최명길과 조익(趙翼)(포저(浦渚), 1579-1655)이다.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원석	정조와 윤행임의 「대학장구 서문」 해석과 인물성동이 논쟁(-『증전추록(曾傳秋錄)』 분석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44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	이해임	최명길과 조익의 경전 해석 경향과 그 의의(-사문록, 「맹자기의(孟子記疑)」를 중심으로-)	철학탐구 58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하나의 논문에서 학파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논문은 1편으로 다산학단을 다루고 있다.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서근식	다산학단의 『주역』 해석 방법론 연구(-정약용의 아들들과 방산 윤정기의 『역전의(易傳翼)』을 중심으로-)	민족문화 55	한국고전번역원

2) 한국과 중국 유학자 비교

한국과 중국 유학자를 비교한 논문은 1편으로 캉유웨이(康有爲, 1858-1927)와 이병헌을 비교하고 있다.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안승우	캉유웨이(康有爲)와 이병헌의 『중용』 해석 비교 (-공교(孔敎) 이론의 동이점 고찰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 연구 82	한국유교학회

3. 주제별 분류

이 보고서의 다른 분과에서는 주제별 분류의 기준으로 주로 경학 사상, 철학 사상, 교육 사상, 정치 및 경제 사상 등을 삼고 있다. 이 분과에서는 경학 사상이라는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제별 분류 기준을 연구 대상 경전으로 삼고자 한다. 총 30편의 논문 중에서 28편이 경전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연구 대상 경전별로 살펴보면 『중용』 관련 논문이 8편으로 가장 많고, 『주역』 6편, 『대학』 5편, 『춘추』 4편, 『맹자』 3편, 『논어』 1편, 『시경』 1편이 있다.

1) 『중용』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길태은	간재의 인물성론 고찰(–「중용기의(中庸記疑)」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104	동양철학연구회
2	안승우	캉유웨이(康有爲)와 이병헌의 『중용』 해석 비교(–공교(孔敎) 이론의 동이점 고찰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82	한국유교학회
3	엄연석	김원행 『중용강설』의 실천 지향적 경전 해석의 특징(–문화다원론적 지향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44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4	엄연석	최명길의 「중용관견」에 나타난 경학적 특징과 문화다원론적 지평	퇴계학논집 26	영남퇴계학연구원
5	최석기	하빈 신후담의 『중용』 해석과 그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77	한국한문학회
6	황인옥	『사변록 중용』의 양명학적 양상 고찰(–『중용』 수장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51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7	황인옥	서계의 『중용』 분장절 체계에 관한 연구	유학연구 53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8	황인옥	성호의 경(經)·전(傳) 체제 『중용』 해석 연구(–『중용질서(中庸疾書)』를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98	한국동서철학회

2) 『주역』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서근식	다산학단의 『주역』 해석 방법론 연구(–정약용의 아들들과 방산 윤정기의 『역전익(易傳翼)』을 중심으로–)	민족문화 55	한국고전번역원
2	안승우	이병헌의 금문경학적 『역경』 이해(–태괘(泰卦)와 비괘(否卦)를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79	한국유교학회
3	안승우	이병헌 역학 사상의 신(神) 개념 연구	유교사상문화연구 80	한국유교학회
4	이은호	식산 이만부의 『역통(易統)』과 경학사적 의의	국학연구 42	한국국학진흥원
5	이창일	신후담 역(易) 해석의 통합적 방법론(–「문언전(文言傳)」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53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6	조장연	삼산 류정원의 역학사상	국학연구 43	한국국학진흥원

3) 『대학』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유곤	정조의 『대학』 이해의 특징	동양철학연구 102	동양철학연구회
2	서근식	백호 윤휴 『대학』 해석의 신연구	율곡학연구 41	율곡학회
3	이원석	정조와 윤행임의 「대학장구 서문」 해석과 인물성동이 논쟁(–『증전추록(曾傳秋錄)』 분석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44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4	이현선	퇴계 이황의 『대학』 해석에 있어 특징적 면모	철학탐구 57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5	한정길	다산 정약용의 『대학』 이해와 그 정치사상적 의미	태동고전연구 44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4) 『춘추』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동민	곽종석의 『춘추』 문답을 통해 본 19세기 조선조 지식인의 『춘추』 이해(1)	한국철학논집 65	한국철학사연구회
2	김동민	곽종석의 『춘추』 문답을 통해 본 19세기 조선조 지식인의 『춘추』 이해(2)	한국철학논집 66	한국철학사연구회
3	김동민	이진상의 춘추학에 보이는 화이관(華夷觀)의 특징(1)	유교사상문화연구 81	한국유교학회
4	김동민	이진상의 춘추학에 보이는 화이관(華夷觀)의 특징(2)	한국철학논집 67	한국철학사연구회

5) 『맹자』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길태은	간재의 「독맹자(讀孟子)」 연구(–수양론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52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	배병대	하곡의 『맹자설』 〈호연장해(浩然章解)〉의 구조와 그 윤리학적 함의	양명학 57	한국양명학회
3	이해임	최명길과 조익의 경전 해석 경향과 그 의의(–사문록, 「맹자기의(孟子記疑)」를 중심으로–)	철학탐구 58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6) 『논어』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조정은	『논어문의(論語問疑)』를 통해 본 홍대용의 경학사상사적 의의(–전통적 해석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해석 지평 마련–)	태동고전연구 44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7) 『시경』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연지	『서포만필(西浦漫筆)』의 『시경』 〈관저(關雎)〉 해석에 관한 고찰(–주자의 『시집전(詩集傳)』에 대한 서포의 시각을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64	대동한문학회

4.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1) 『중용』 관련

『중용』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이 연구가 되지 않은 하빈(河濱) 신후담(愼後聃)의 『중용』 이해를 다룬 「하빈 신후담의 『중용』 해석과 그 의미」(최석기)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신후담이 『중용』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관점의 특징으로 세 가지 점을 들고 있다. 첫째, 주자의 『중용장구』를 저본으로 구조를 분석하고 요지를 파악하는 점, 둘째, 제가(諸家)의 설을 두루 참조하여 합리적 해석을 하는 점, 셋째, 본지 탐구를 통한 의리 발명을 중시하는 점을 들고 있다. 신후담의 『중용』 해석 태도의 특징으로 세 가지 점을 들고 있다. 첫째, 고전(古典)을 폭넓게 인용하여 논증하는 태도, 둘째, 자서(字書)와 운서(韻書) 등을 인용하여 원의(原義)에 적합한 뜻을 찾는 태도, 셋째, 문장이나 단락의 논리 구조를 파악하면서 조응 관계를 중시하는 태도를 들고 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중용』의 핵심 명제에 대한 신후담의 독자적인 해석의 특징으로 여섯 가지 점을 들고 있다. 첫째, 중용(中庸)을 주자와는 달리 시중(時中)과 상구(常久)로 해석한 점, 둘째, 제1장을 『대학』의 삼강령(三綱領)과 (八條目)에 비의하여 해석한 점, 셋째, 『중용』 전편의 요지를 성(性), 도(道), 교(敎)의 공부로 파악한 점, 넷째, 중용은 도체(道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도를 체득하여 덕을 이룩한 것으로 해석한 점, 다섯째, 공자중용(孔子中庸)은 시중(時中)을 말한 것으로 보아 행사(行事)에 나타나는 실상으로 파악한 점, 여섯째, 비(費)와 은(隱)을 체용론(體用論)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일반인도 알고 할 수 있는 것은 비(費)로, 성인도 모르고 할 수 없는 것은 은(隱)으로 해석한 점

을 들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신후담의 『중용』 해석은 천도(天道)보다는 인도(人道)에 초점을 두고 있고, 천리(天理)보다는 인사(人事)에 초점을 둔 것이며, 이러한 해석은 성호(星湖) 이익(李瀷)의 영향을 다분히 받은 것으로 성호학파의 실학적 사유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중용』과 관련해서 성호(星湖) 이익(李瀷)의 해석을 다룬 「성호의 경(經)·전(傳) 체제 『중용』 해석 연구(-『중용질서(中庸疾書)』를 중심으로-)」(황인옥)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중용』을 경(經)과 전(傳)의 체제로 해석한 이익의 『중용질서』에 대해 살펴보고, 이익의 경·전 체제 『중용』 해석의 의의와 한계점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일단 이 논문에서는 이익이 『중용』의 2장-11장을 '공자의 중용'인 경(經)으로 보아 『중용』의 핵심 내용이라고 파악하고, 12장-32장을 '자사의 중용'인 전(傳)으로 보아 경을 부연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파악하여, 『중용』을 공자가 중용의 도를 세상에 실현하기 위하여 경세적인 입장을 밝힌 경전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익의 『중용』 이해 방식에 세 가지 의의가 있다고 분석한다. 첫째, 이익이 『중용』의 체제를 시작하는 말, 공자 중용, 자사 중용, 맺음말 체제로 나누고, 1장을 공자 중용의 원리를 설명한 내용이라고 분석하여 『중용』 해석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견해를 제시한 점을 들고 있다. 둘째, 이익이 중용의 도가 인간관계의 기본인 오륜의 실천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설정하여 주체자의 실심(實心)을 강조한 점을 들고 있다. 셋째, 이익이 공자 중용의 내용을 중용의 지극함과 중용이 현실에서 행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공자의 안타까움, 중용의 도가 행해지던 과거의 증명, 중용지도(中庸之道)의 미래 전망이라고 파악하고, 자사 중용의 내용을 공자 중

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실천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익이 『중용』을 개인의 도덕 실천은 물론이고, 경세적인 의미까지 담고 있는 경전으로 해석하여 『중용』의 효용성을 강조한 점을 들고 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이익의 『중용』 해석의 한계점에 대해 네 가지 점을 들고 있다. 첫째, 이익이 『중용』을 경과 전 체제로 이해하였으나 주자의 33장 구조를 그대로 따름으로써 주자의 분장 구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둘째, 이익이 2장-11장을 공자 중용으로 보는 이유를 2장-11장 안에 다른 사람의 말이 없고 문장이 '중니왈', 또는 '자왈'로 시작되고 문장의 체제가 다른 장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사 중용이라고 파악한 12장-32장 부분에도 '자왈'로 시작되는 장이 6개나 있으며, 문장의 체제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점을 한계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셋째, 이익이 1장을 공자의 말이 간략하고 어려운 것을 염려하여 그 근원을 추구하여 자사가 썼다고 하였으나, 이것의 정확한 근거나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한계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넷째, 이익이 『중용』을 성(誠)을 위주로 하는 책이라고 보고, 『중용질서』의 후반부에서 성에 대해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이익이 성(誠)을 공자 중용의 지·인·용을 부연 설명하는 보조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을 한계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의 『중용』 해석은 성리학적 풍토에서 실학으로 이어지는 전환기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2) 『주역』 관련

『주역』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많이 연구가 되지 않은 진암(眞菴) 이병헌(李炳憲)의 『주역』 이해를 다룬 「이병헌 역학 사상의 신(神) 개념 연구」(안승우)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유교 개혁의 일환으로 유교의 종교화 운동을 진행한 진암 이병헌이 유교의 종교적 성격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주역』에 주목했다는 점, 또한 『주역』의 핵심 개념을 신(神)으로 파악한 점을 근거로, 이병헌의 역학 사상에 나타난 신 개념의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병헌의 역학 사상에 나타난 신 개념의 특징으로 크게 두 가지 점을 들고 있다. 첫째, 점(占)의 대상으로서의 신 개념을 언급하지만, 그의 논의는 외재적 신에 주목하지 않고, 점과 신을 대하는 인간의 마음가짐을 주목한다는 특징을 들고 있다. 즉 이병헌은 『역경』의 점서(占書)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면서도 몽괘(蒙卦)와 비괘(比卦)에 기반하여 처음 점을 쳐서 묻는 마음과 그 처음의 마음을 잘 길러나가 마음을 회복하여 그 바른 마음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것을 점의 근원으로 여긴다고 파악한다. 둘째, 이병헌은 입신(入神)과 교신(交神)의 과정에서 특히 인간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노력과 실천력을 중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誠)이라고 주장한 점을 들고 있다. 즉 이병헌은 인간 주체가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느냐가 절대적 희망으로서의 종교의 본질에 다가가는 관건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파악한다.

또한 『주역』 해석과 관련해서 그 동안 많이 연구가 되지 않은 식산(息山) 이만부(李萬敷)의 『주역』 이해를 다룬 「식산 이만부의 『역통(易統)』과 경학사적 의의」(이은호)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만부의 『주역』 이해의 특징으로 크게 세 가지 점을 들고 있다. 첫째, 이만부의 『역

통』은 조선 도서상수학(圖書象數學)의 계열을 잇는 집대성적인 저작이자 도서상수학의 총집성 성격의 저작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둘째, 이만부의 『역대상편람(易大象編覽)』은 조선 역학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정이의 『역전』과 주자의 『본의』를 부기하면서도 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관점을 적극 피력하고 있으며, 특히 22개로 재구성된 주제로 어떤 괘가 지니는 고유한 의미보다는 「대상전」이 말하고 있는 특정한 명제를 주제로 삼아 부각시킴으로써 『주역』 전편에 대한 주석서가 아닌 군왕의 통치를 위한 지침서로 편찬하여, 군주의 수기를 강조하는 『주역』의 의리적 해석에 방점을 둔 점을 들고 있다. 셋째, 이만부는 『역통』으로서 도서상수학의 정통을 계승하면서 주자학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했고, 다른 한편으로 군주의 수기안인을 강조하기 위한 의리로서의 『역대상편람』을 편찬하여 상수와 의리의 명확한 구분과 함께 그 어떤 것도 소홀히 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이만부의 『주역』 이해는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학통을 계승하며 조선중후기 조선 도서상수학의 끝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3) 『대학』 관련

『대학』과 관련해서는 정조의 『대학』 이해의 특징을 파악한 「정조의 대학 이해의 특징」(김유곤)이 있다. 정조의 『대학』 이해에 관한 선행 연구가 많은 편인데, 이 논문의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은 정조의 『대학』 이해의 특징을 살펴 볼 수 있는 핵심 저술인 『경사강의(經史講義)·대학(大學)』에 실려 있는 정조의 질문 내용을 글자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질문의 성격과 의도를 분석하여 정조의 본의를 토대로 『대학』 이

해의 특징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정조가 『경사강의·대학』 어제조문(御製條問)에서 주자의 『대학』 해석에 대해 많은 부분 의문을 제기하지만, 주자의 해석이 틀리지 않다고 대답한 초계문신(抄啟文臣)들의 답변을 대부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조의 『대학』 이해는 기본적으로 주자의 입장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파악한다. 그렇지만 정조가 주자의 입장을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며 그 정합성을 치밀하게 묻고 따지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파악한다. 이러한 특징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 논문에서는 세 가지 점을 들고 있다. 첫째, 주자가 명덕(明德)에 대해 "사람이 하늘에서 얻은 바로 허령불매(虛靈不昧)하여 중리(衆理)를 갖추고 있고 만사(萬事)에 응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한 이후로 많은 논란이 있어 왔는데, 정조는 분명하게 명덕은 본심(本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둘째, 주자가 친민(親民)을 신민(新民)으로 고친 이후로 많은 논란이 되어 왔는데, 정조도 이에 대해 여러 차례 의문을 제기하며 질문을 하지만, 주자가 개정한 신민의 입장을 받아들인다는 점을 들고 있다. 셋째, 경학사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던 주자의 격물치지(格物致知)의 공부 방법과 격물치지보망장(格物致知補亡章)에 대해 정조가 반복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초계문신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주자의 견해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점을 들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정조의 『대학』 이해의 가장 큰 특징으로 주자의 『대학』 이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치밀하게 분석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한 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대학』 해석과 관련해서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대학』 이

해를 다룬 「퇴계 이황의 『대학』 해석에 있어 특징적 면모」(이현선)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황의 『대학』 해석의 특징적 면모를 경학사적 맥락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그의 『대학』 해석 관점이 공부론에 있어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고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황의 『대학』 해석의 가장 큰 특징으로 먼저 주자의 『대학장구』 체제를 존숭하는 입장에서 16세기 당시 중국과 조선 일각에서 논의되던 『대학』 개정론에 대해 비판한 점을 들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16세기에 제기된 『대학』 개정론은 대체로 주자의 궐문설(闕文說)에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착간설(錯簡說)을 주장한 것으로, 이는 주자의 「격물치지보망장(格物致知補亡章)」이 『대학』 문장 구성에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격물치지(格物致知)에 대한 전문(傳文)은 기존 『고본대학』 내의 문장들을 재조합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별도로 논의를 세울 필요가 없다는 논의로, 결국은 주자 공부론의 핵심 내용인 격물치지 공부의 중대성을 약화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황이 『대학』 개정을 시도하는 논의들은 「격물치지보망장」의 의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이는 곧 주자학의 격물치지 공부론 함의를 파악하지 못한 데에서 온 잘못이라고 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 개정론에 대한 이황의 이해는 격물치지 공부에 대해 비판적인 당시 탈주자학적 사조와 그 영향을 배제하고 주자학 본연의 공부론을 재구축하고자 한 이황의 학문적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황의 관점에서 드러나는 『대학』 해석의 가장 큰 특징적 면모는 『대학장구』에서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경(敬) 개념을 구체적 공부의 맥락 속에서 이끌어내면서 『대학』의 전 공부 과정이 궁극적으로는 경으로 귀결된다고 파악하여, 격물치지 공부

를 적극적으로 경 공부와 연관시킨 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즉 이황이 경 공부의 연장선에서 격물과 치지를 강조하면서 최종적으로 도덕적 앎의 완성인 진지(眞知)를 강조한 점은 『대학』의 공부를 심(心) 위주의 내성(內省) 공부에 보다 강조점을 두어 해석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4) 『춘추』 관련

『춘추』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많이 연구가 되지 않은 면우(俛宇) 곽종석(郭鍾錫)의 『춘추』 이해를 다룬 「곽종석의 『춘추』 문답을 통해 본 19세기 조선조 지식인의 『춘추』 이해(1)」(김동민)/「곽종석의 『춘추』 문답을 통해 본 19세기 조선조 지식인의 『춘추』 이해(2)」(김동민)가 있다. 이 두 논문에서는 곽종석의 『다전경의답문(茶田經義答問)』에 보이는 곽종석과 문인의 『춘추』 문답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19세기 조선조 『춘추』 경학의 학문적 특징과 당시 지식인들의 『춘추』 이해 방식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들 논문에서는 곽종석의 『춘추』 이해의 특징으로 크게 네 가지 점을 들고 있다. 첫째, 『춘추』와 노나라 역사서의 관계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곽종석은 『춘추』가 노나라 역사서를 저본으로 삼은 것은 인정하지만, "노나라의 역사서는 그 자체로 노나라의 역사서이고, 『춘추』는 그 자체로 『춘추』이다."라고 단언하여, '춘추'라는 명칭은 공자가 최초로 사용하였으며, 『춘추』는 공자의 독창적인 창작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둘째, 『춘추』 기록의 시작 시점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곽종석은 노나라의 역사서에서 은공 이전까지의 기록은 이미 완비된 형태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손을 댈 필요가 없었던 반면

에, 은공 이후의 기록은 불완전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손질하여 만든 것이 『춘추』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이 주제와 관련하여 곽종석은 천하의 혼란이 은공 시대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 노나라 역사서의 상태가 은공을 전후로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논증함으로써 추론의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치밀함을 보인 점을 특징으로 들고 있다. 셋째, 곽종석은 춘추 경문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객관적 자료이기 때문에 춘추의 대의도 또한 철저하게 경문을 통해 밝혀야 한다는 독법의 원칙을 제시한 점을 들고 있다. 넷째, 기존의 해석이 춘추 필법이나 의리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비판하고, 철저하게 경문 자체의 분석을 통한 객관적인 해석에 치중함으로써 해석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점을 들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두 논문에서는 곽종석과 그 문인의 『춘추』 경학은 19세기의 고증학적이고 실학적인 학풍이 충실하게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조선조 춘추학의 전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학술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하고 있다.

5) 『맹자』 관련

『맹자』와 관련해서는 하곡(霞谷) 정제두(鄭齊斗)의 『맹자』 이해를 다룬 「하곡의 『맹자설』 〈호연장해(浩然章解)〉의 구조와 그 윤리학적 함의」(배병대)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정제두의 『맹자설』 〈호연장해〉를 조명하여, 〈호연장〉의 내용과 구조가 '앎과 덕성의 합일'이라는 윤리학적 주제와 맞닿아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두 가지 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호연장〉에 담긴 '앎과 덕성의 합일'은 양기(養氣)를 말단으로 여기는 주자의 관점이나, 지언(知言)을 소홀히 여기는 양명

의 관점에서는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반변에, 하곡의 〈호연장〉 해석에서는 앎이라는 지언 공부와 덕성 함양이라는 양기 공부가 마음 공부를 통해 관통하고 있음을 들고 있다. 둘째, 정제두는 심본론(心本論)의 관점을 유지하면서도 지언을 마음 수양으로 도달하는 높은 경지로 파악하며, 물망(勿忘)과 물조(勿助)라는 끊임없는 후천적 노력의 중요성도 소홀히 여기지 않은 점을 들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정제두의 『맹자설』 〈호연장해〉를 통해 성리학 일색의 조선 학문 풍토에서 양명좌파의 폐단을 우려하면서 주자학까지 비판적으로 수용하려는 정제두의 학문적인 섬세함과 담대함을 엿볼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6) 『논어』 관련

『논어』와 관련해서는 담헌(湛軒) 홍대용(洪大容)의 『논어』 이해를 다룬 「『논어문의(論語問疑)』를 통해 본 홍대용의 경학사상사적 의의(-전통적 해석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해석 지평 마련-)」(조정은)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홍대용의 『논어』 이해의 특징으로 유가에서 받드는 인물들의 권위와 이들에 관한 주석의 권위에서 벗어나 『논어』를 이해한 점, 그 권위에 균열을 내는 도구로 상식과 유가 이념을 취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즉 이 논문에서는 그동안 문제 삼을 수 없었던 대상을 문제 삼으면서 경문의 본래 뜻과 상관성이 약한 불필요한 논의에 경종을 울리고, 공자를 현실을 살아간 한 인간으로 되살려 내고, 유가의 성인을 높인다면서 오히려 유가 이념에 배치되는 논의로 귀결되는 폐단을 드러낸 점을 홍대용의 『논어』 이해의 특징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논어』 이해에 나타난 홍대용의 비판 작업은 유학에 대한 반발이 아닌

오히려 유학이 그간 간과했던 유학의 본래 정신 즉, 현실에 근거해 마땅함을 평가해야 하고, 군신과 부자의 도리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정신을 환기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논어』 이해에 나타난 홍대용의 경학사상사적 의의는 유가적 권위로부터 자유로운 입장에서 경험적 상식과 유가 이념에 근거해 경문과 주석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새로운 경학 흐름을 만들어 갈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5. 평가와 전망

앞으로 한국 경학 연구가 지향하고 이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각 경전별로 경학사가 서술되고, 이를 종합하여 구체적인 한국 경학사를 서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연구되지 않은 경학가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2020년 경학 연구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경학 측면에서 기존에 많이 연구 되지 않았던 하빈 신후담의 『중용』, 진암 이병헌의 『주역』, 면우 곽종석의 『춘추』 등에 대한 연구 성과는 이러한 맥락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도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학자들의 경학에 대한 연구 성과가 많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